濟州島硏究 제46집
2016. 8. pp. 41~80.

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濟州仙景歌)〉 교정 연구

윤용택*

국문요약

현공 윤주일(1895~1969)은 한국전쟁 중에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제주선경가〉를 지었다. 현공은 〈제주선경가〉에서 그동안 유학자들이 도가적 이상향으로 구성한 영주십경과 제주의 자연, 역사, 지명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주섬이 불국정토임을 천명하고 있다. 제주선경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광주에서 출간된 『불교강연집』에 실려 있지만 제주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1982년 7월 「제주신문」을 통해서이다. 「제주신문」에 보도된 〈제주선경가〉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고, 잘못된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이미 널리 유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수정되었다. 재판 『불교강연집』에 실린 〈제주선경가〉는 현공의 생전에 교정된 것이고,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발간한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과 『불교강설』에 실린 〈제주선경가〉는 제주지역 포교를 위해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제주어를 일부 수용하여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현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현공의 〈제주선경가〉들과 「제주신문」에 보도된 〈제주선경가〉를 검토하여 시비를 논해보고자 한다.

* 제주대 철학과 교수

주제어: 현공 윤주일, 제주선경가, 영주십경, 불교강연집, 불교강설

Ⅰ. 들어가는 말

현공 윤주일(玄空 尹柱逸, 1895~1969)은 우리나라 현대불교 선각자들인 용성 백상규(龍城 白相奎, 1864~1940)와 만해 한용운(卍海 韓龍雲, 1879~1944)에게 사사받은 불교사상가이다. 그는 1919년부터 평양에서 불교청년회 활동과 사회사업을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면서 불교를 포교하다가 1947년 남하하였다. 서울로 내려온 그는 경전번역에 몰두하면서 대중법회를 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목포, 광주, 제주, 부산 등지를 다니면서 대중포교에 힘썼다. 그는 1951년 제주도 관음사 포교당을 무대로 1년 남짓 제주에 머무르면서 교화활동을 하였고, 1952년에 광주로 나와 일반대중과 승려에게 불교를 가르치다가 1967년 전주로 거처를 옮겨 승려교육과 대중포교에 힘쓰다가 1969년 입적하였다.[1)]

현공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제주의 풍광과 불연(佛緣)을 노래한 <제주선경가(濟州仙景歌)>[2)]를 남겼다. 그는 <제주선경가>에서 팔만대장경 속의 <법주기(法住記)>를 근거로 제주가 불가(佛家)의 고장임을 밝히고 있다. 그는 그동안 조선 유학자들에 의해 도교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온 영주십경을 불교적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1) 이중표, 2010, 「현공 윤주일과 호남불교」, 『호남문화연구』 48, 호남학연구원, 303~307쪽.

2) <제주선경가>는 尹柱逸, 1953, 『佛敎講演集』(초판), 全南日報社, 337-340쪽; 尹柱逸, 1962, 『佛敎講演集』(재판), 全南日報社, 197-199쪽; 李東豪 編, 1987, 『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湖西文化社, 416~418쪽; 尹柱逸, 1988, 『佛敎講說』, 宣文出版社, 272-275쪽에 실려 있는 불교창가체 노래이다.

하면서, 제주의 역사, 지형, 지명 등을 놓고 볼 때 제주는 <법주기>에 등장하는 발타라존자(跋陀羅尊者)가 9백 아라한과 거주하는 탐몰라주(耽沒羅洲)로 불연이 매우 깊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선경가>는 현공이 이 한국전쟁 중 제주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제주도민을 포교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광주에서 출간된 『불교강연집(佛敎講演集)』(초판)에 실려 있다. 하지만 <제주선경가>가 제주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1982년 7월 「제주신문」을 통해서이다. 신문에 보도된 <제주선경가>는 뒤죽박죽되어 전후좌우 맥락을 잃고 있다. 게다가 ①<제주선경가>가 고려 팔만대장경에 실려 있다 ②<제주선경가> 속에 영주십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주십경은 고려 때부터 있어왔다 ③<제주선경가>는 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것을 윤주일이 해석했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게 되었고, 신문에 실린 <제주선경가>는 현공의 <제주선경가>의 원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내용들이 진실인 것처럼 이미 널리 유포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교정(校訂)이 필요하다.

<제주선경가>는 현공이 생존했던 1962년 재판 『불교강연집』에서 한 차례 수정되었고, 그의 사후에 1987년 『현공윤주일대법사설법집(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이하 『설법집』)과 1988년 『불교강설(佛敎講說)』을 발간하면서 두 차례 수정되었다. 따라서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적어도 세 차례 이상 수정되었고, 네 가지 판본이 있으며, 「제주신문」에 실린 것까지 합치면 다섯 가지가 있는 셈이다. 현공의 네 가지 판본의 <제주선경가>는 모두 8·5 내지 7·5조 불교창가(佛敎唱歌) 형식을 띠고 14절 713자(불보살명호 36자 포함 749자)이지만, 맞춤법이 약간씩 다르다. 특히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수정한 두 <제주선경가>는 제주어를 일부 사용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정서에 맞춰 포교하

려 했던 현공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Ⅱ. 잘못 알려진 <제주선경가>

1. 「제주신문」 속의 <제주선경가>

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는 1982년 7월 31일자 「제주신문」을 통해 제주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선경가>를 제주신문사에 전한 이는 한라산 아흔아홉골에 천왕사를 창건하여 오랫동안 수도하던 박비룡(朴飛龍, 1901-2000) 스님이다.

초판(1953)과 재판(1962)의 『불교강연집』에 실린 <제주선경가>와 1987년에 출간된 『설법집』의 <제주선경가>가 모두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982년 비룡스님이 제주신문사에 제보한 <제주선경가>도 2단 세로쓰기로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신문」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2단 세로쓰기로 된 <제주선경가>를 가로로 읽고 네 부분으로 나눠 싣는 바람에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뒤죽박죽되어 전후좌우 맥락을 잃고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제주신문사에서 잘못 보도한 <제주선경가>와 기사 내용을 전재한다.

海印寺 8만대장경 가운데 『濟州仙景歌』 있어 주목[3]

국보 52호인 海印寺의 대장경 8만1천2백58본의 木版 가운데 「濟州仙景歌」가 끼어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 내용은 본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고, 濟州가 불가의 도량이라고 읊고 있다. (慶南 陜川郡 海印寺의 대장경

3) 「제주신문」, "海印寺 팔만대장경 가운데 <濟州仙景歌> 있어 주목", 1982. 7. 31.

중에서 이 내용을 해석한 이는 大韓佛敎 禪學院 尹柱日[4] 거사.)

漢拏山의 「拏」자가 같은 여(如)와 손 수(手)가 합쳐진 그 뜻이 바로 「두 손을 합장하고 선 모습」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며, 濟州의 「濟」를 고해중생을 濟度할 「濟」자이니 합할 합(合)과 손 수(手)의 나(拿)자도 잡을 라(拏)자가 되므로 본도 땅은 尊者께서 예불하는 수도장이요, 고해중생을 제도하는 전법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장경의 〈濟州仙景歌[5]〉를 전재한다.

[5] 1982年7月31日 土曜日

海印寺 8만대장경 가운데

「濟州仙景歌」있어 주목

濟州…불가의 道揚

"尊者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 苦海衆生들을 제도하는 전법상"

제주신문(1982. 7. 31)에 실린 〈제주선경가〉 소개

4) 尹柱逸의 오기(誤記)이다
5) 〈濟州仙景歌〉의 오기이다.

I

구경가세 濟州仏景[6] 구경가세.
南方으로 水路길 5백리 가면
南海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백록담 머리위엔 감로수 있고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앉은양.
좌우로 아름답게 뻗은 산맥은
三神山 영주산인 漢拏山인데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 풍경은
그 중에도 영주십경을 들어보셔요.
城山日出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영구춘화 봄꽃이 백화가 난만.
正房한폭 물줄기는 시원도하다.
山房窟寺는 기묘한 수도장인데
고수목마 노는 말은 자유천지요.
아득한 옛날 三姓穴에서
一徒·二徒·三徒里에 웅거했도다.

II

耽羅國은 佛敎에서 생겨났으니
말세중생 제도하는 도량이라고
「濟州」라는 「濟」자는 무슨 「濟」자일까.
漢拏山의 「拏」자는 무슨「拏」자인고.
같을「如」자 손 수「手」자로 잡을 라「拏」자인데
두 손을 합장하고 선 모양은,
손에손에 마주잡고 끄는 모양은
둥그렇게 일월상사의 백리주변이다.
이 배 이름은 「탐몰나주」漢拏山인데
장하도다 구백나한을 옹호하시고

6) 濟州仙景의 오기(誤記)이다.

摹瑟浦에서 염불중생 모두 싣고
西歸浦서 닻을 올려 西方정토로
「나무서방대교주 무양수여래불[7]」

Ⅲ

일난풍화 좋은 때에 구경가보세.
우뚝솟은 漢拏山이 바라보이네.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요,
방금 물속에 솟아나온 듯이
우리들을 보고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두활개를 벌이면서 맞아들이네.
漢拏山은 우리나라 十景중 제일가는 곳.
가는 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 수 없네.
紗峰落照 지는 해는 일상광일세,
橘林秋色 가을빛은 황금의 세계.
鹿潭晩雪 쌓인 눈은 설산이 온 듯,
靈室奇岩 千佛羅漢 장엄도하다.
山浦釣魚 뛰는 고기는 용궁세계라,
高・夫・梁님이 솟아나오사
자유낙원 耽羅國을 건설하셨네.

Ⅳ

16나한 여섯짜분 발타라존자,
8만장경 법주기에 기록하셨네.
고해중생을 제도하는 건질 「濟」자요
손을 잡고 끌고가는 잡을 「拏」자요
합할 「合」자에 손 「手」자도 잡을 「拿」자니
尊者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

7) 무량수여래불의 오기이다.

고해중생 제도하는 전법상이다.
바다에 뜬 반야용선 같은 뱃모양이로구나.
뱃사공은 유명하신 발타라존자이구나.
天上에서 풍악소리가 들려오는데
法還里에서 法을 깨우쳐 마음을 돌리세.
돌아가세 극락세계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 濟州仙景歌는 禪學院 濟州支部 朴飛龍스님의 전으로 기록했다.

2. 잘못 알려진 <제주선경가> 내용들

1) 팔만대장경에 <제주선경가>가 들어있다

「제주신문」 보도에는 "국보 52호인 해인사의 대장경 8만1천2백58본의 목판 가운데 <제주선경가>가 끼어있어 주목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된 것은 <제주선경가>에 등장하는 "'열여섯 대아라한 가운데 여섯 번째 존자인 발타라존자가 그 권속 구백 아라한을 데리고 탐몰라주에 산다'는 내용이 팔만대장경 <법주기>[8]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팔만대장경에

8) 如是傳聞 佛薄伽梵般涅槃 後八百年中 執師子國勝軍王都有阿羅漢 名難提蜜多羅<唐言 慶友>…尊者告曰 汝等諦聽 如來先已說法住經 今當爲汝粗更宣說 佛薄伽梵般涅槃時 以無上法付囑十六大阿羅漢 幷眷屬等令其護持使不滅沒 及勅其身與諸施主作眞福田 令彼施者得大果報 時諸大衆聞是語已少解憂悲 復重請言所說 十六大阿羅漢我輩不知其名何等 慶友答言 第一尊者名賓度羅跋囉惰闍 第二尊者名迦諾迦伐蹉 第三尊者名迦諾迦跋釐墮闍 第四尊者名蘇頻陁 第五尊者名諾距羅 第六尊者名跋陁羅第七尊者名迦理迦 第八尊者名伐闍羅弗多羅 第九尊者名戍博迦 第十尊者名半託迦第十一尊者名囉怙羅 第十二尊者名那伽犀那 第十三尊者名因揭陁 第十四尊者名伐那婆斯 第十五尊者名阿氏多 第十六尊者名注荼半託迦 如是十六大阿羅漢 一切皆具三明六通八解脫等無量功德 離三界染誦 持三藏博通外典 承佛勅故以神通力延自壽量 乃至世尊正法應住常隨 護持及與施主作眞福田 令彼施者得大果報 爾時芯芻芯

<제주선경가>가 들어있다"는 걸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선경가>에서 "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 십육라한 여섯째분 발타라존자 말세중생 제도하는 도량이라고 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하셨네"라는 대목은 팔만대장경 속의 <법주기>를 인용한 것이다. 「제주신문」 기자가 그것을 오해하여 <제주선경가>가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 있다고 보도한 것은 오류이다. <제주선경가>에 모슬포, 서귀포, 법환리 등 오늘날 지명이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제주선경가>가 고려 팔만대장경에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2) 윤주일 거사가 <제주선경가>를 해석했다

「제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주선경가>는 팔만대장경 안에 수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해석한 이가 윤주일(尹柱日)[9] 거사라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선경가>는 <관세음보살찬탄가>, <불국세계금수강산가>와 함께 현공 윤주일이 1953년 『불교강연집』에서 처음 발표한

芻尼等 復重請言 我等不知 十六尊者多住何處 護持正法饒益有情 慶友答言 第一尊者與自眷屬千阿羅漢多分住在西瞿陁尼洲 第二尊者與自眷屬五百阿羅漢多分住北方迦濕彌羅國 第三尊者與自眷屬六百阿羅漢多分住在東勝身洲 第四尊者與自眷屬七百阿羅漢多分住在北俱盧洲 第五尊者與自眷屬八百阿羅漢多分住在南贍部洲 第六尊者與自眷屬九百阿羅漢多分住在耽沒羅洲 第七尊者與自眷屬千阿羅漢多分住在僧伽茶洲 第八尊者與自眷屬千一百阿羅漢多分住在鉢剌孥洲 第九尊者與自眷屬九百阿羅漢多分住在香醉山中 第十尊者與自眷屬千三百阿羅漢多分住在三十三天 第十一尊者與自眷屬千一百阿羅漢多分住在畢利颺瞿洲 第十二尊者與自眷屬千二百阿羅漢多分住在半度波山 第十三尊者與自眷屬千三百阿羅漢多分住在廣脅山中 第十四尊者與自眷屬千四百阿羅漢多分住在可住山中 第十五尊者與自眷屬千五百阿羅漢多分住在鷲峯山中 第十六尊者與自眷屬千六百阿羅漢多分住在持軸山中…",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 晝 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고려대장경 K-1046[30-0686]).

9) 尹柱逸의 오기이다.

창작품이다.

현공은 한국 근대불교의 선각자들인 만해와 용성의 뜻을 이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어려운 불교경전들을 쉬운 한글로 번역하고, 불교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현공의 포교 노래들은 경허(鏡虛, 1849~1912), 용성(龍城), 학명(鶴鳴, 1867~1929), 만공(滿空, 1871~1946), 한암(漢巖, 1876~1951) 등의 20세기 불교가사(佛敎歌辭)의 전통과 권상로(權相老, 1879~1965), 김태흡(金泰洽, 1899~1989) 등의 신체시불교가사(新體詩佛敎歌辭) 내지는 불교창가(佛敎唱歌)의 맥을 잇고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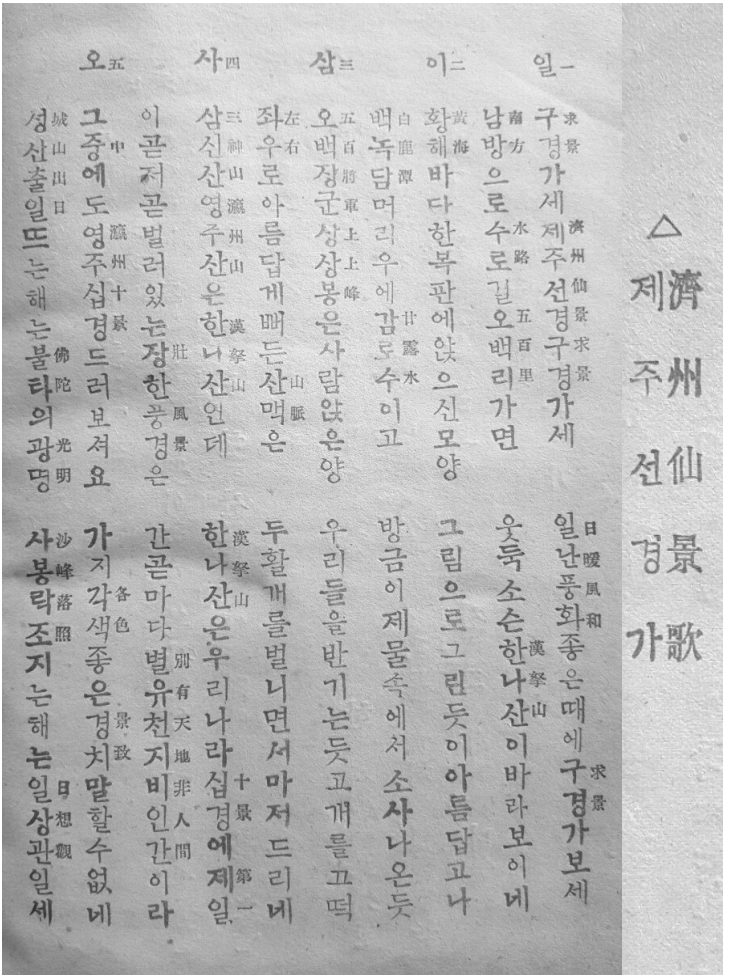
현공은 제주도 피난생활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펴낸 『불교강연집』 말미(末尾)에 <관세음보살찬탄가>, <불국세계금수강산가>와 함께 <제주선경가>를 수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는 <제주선경가>는 현공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 중에 제주도에 피난하여 제주도민에게 불교를 포교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은 포교노래가 확실하다.

3) 뒤죽박죽된 <제주선경가>

「제주신문」 <제주선경가>는 우선 영주십경이 I, Ⅲ에 흩어져 있고, 한라산(漢拏山, 漢挐山, 漢拿山)의 한자 풀이와 모슬포, 서귀포, 법환리 등 제주지명도 Ⅱ, Ⅳ에 흩어져 있다. <제주선경가>가 「제주신문」에 실리면서 뒤죽박죽된 이유는 원래 세로 상하 2단으로 된 현공의 <제주선경가>가 가로로 읽혀 네 부분으로 분리되어 실렸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선경가>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1953년 10월 전남일

10) 윤용택, 2016, 「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 연구」, 『탐라문화』 5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25쪽.

보사에서 출판한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를 보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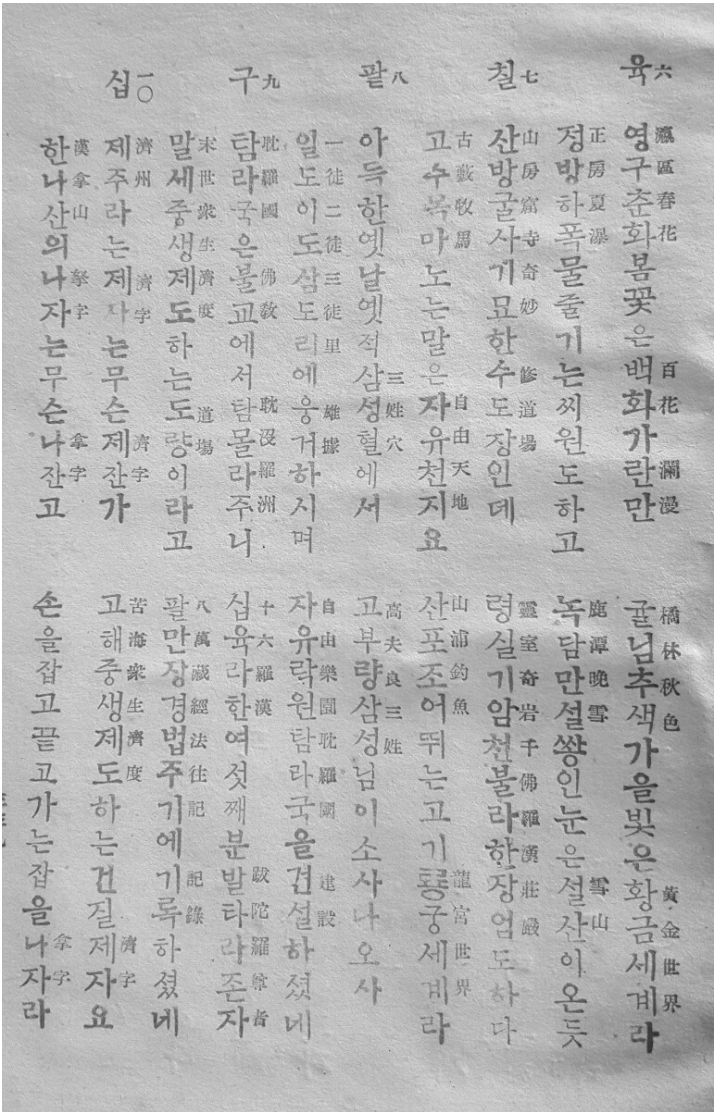


△ 濟州仙景歌 제주선경가

일一 구경가세 제주선경구경가세 (求景 濟州仙景求景)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가면 (南方 水路 五百里)
이二 황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黃海)
백녹담 머리우에 감로수이고 (白鹿潭 甘露水)
삼三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앉은양 (五百將軍上上峰)
좌우로 아름답게 뻐든 산맥은 (左右 山脈)
사四 삼신산 영주산은 한나산인데 (三神山 瀛州山 漢拏山)
이곧저곧 벌러있는 장한 풍경은 (壯 風景)
오五 그중에도 영주십경 드러보셔요 (中 瀛州十景)
성산출일 뜨는해는 불타의 광명 (城山出日 佛陀 光明)

일난풍화 좋은때에 구경가보세 (日暖風和 求景)
웃둑소슨 한나산이 바라보이네 (漢拏山)
그림으로 그린듯이 아름답고나
방금이 제물속에서 소사나온듯
우리들을 반기는듯 고개를 끄떡
두활개를 벌니면서 마저드리네
한나산은 우리나라 십경에 제일 (漢拏山 十景 第一)
간곧마다 별유천지비인간이라 (別有天地非人間)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수 없네 (各色 景致)
사봉락조지는해는 일상관일세 (沙峰落照 日想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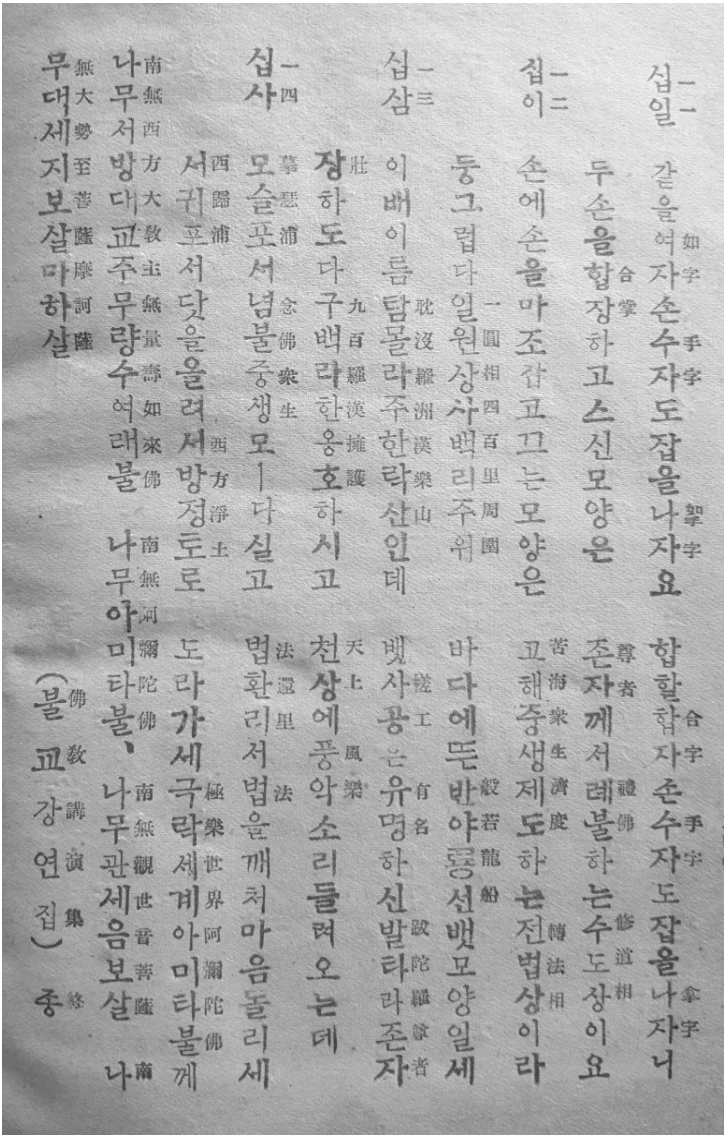
초판 『불교강연집(1953)』 〈제주선경가〉 (1~5절)



六 瀛區春花 百花瀾漫
육 영구춘화봄꽃은백화가란만
정방하폭물줄기는찌원도하고
七 山房窟寺奇妙修道場
칠 산방굴사기묘한수도장인데
古載牧馬 自由天地
고수복마노는말은자유천지요
八 三姓穴
팔 아득한옛날옛적삼성혈에서
一徒二徒三徒里 雄據
일도이도삼도리에웅거하시며
九 耽羅國 佛敎 耽沒羅洲
구 탐라국은불교에서탐몰라주니
末世衆生濟度 道場
말세중생제도하는도량이라고
一〇 濟州 濟字
십 제주라는제 다 濟字 는무슨제 濟字 가
漢拏山 拳字 拿字
한나산의나 拿字 자는무슨나 拿字 잔고

橘林秋色 黃金世界
귤림추색가을빛은황금세계라
鹿潭晚雪 雪山
녹담만설쌓인눈은설산이온듯
靈室奇岩千佛羅漢莊嚴
령실기암천불라한장엄도하다
山浦釣魚 龍宮世界
산포조어뛰는고기룡궁세계라
高夫良三姓
고부량삼성님이소사나오사
自由樂園 耽羅國 建設
자유락원탐라국을건설하셨네
十六羅漢 跋陀羅尊者
십육라한여섯째분발타라존자
八萬藏經法住記 記錄
팔만장경법주기에기록하셨네
苦海衆生濟度
고해중생제도하는건질 濟字 제자요
拿字
손을잡고끌고가는잡 拿字 을나자라

초판『불교강연집(1953)』〈제주선경가〉(6~10절)



一一 십일 같을여(如字) 자손수(手字) 자도잡을나(拏字)자요 합할합(合字) 손수(手字) 자도잡을나(拿字)자니

두손을합(合掌)장하고스신모양은 존자(尊者)께서례불(禮佛)하는수(修道相)도상이요

一二 십이 손에손을마조갑고끄는모양은 고해중생(苦海衆生濟度)제도하는전법상(轉法相)이라

둥그럽다일원상(一圓相四百里周圍)사백리주위 바다에뜬반야용선(般若龍船)뱃모양일세

一三 십삼 이배이름탐몰라(耽沒羅洲漢樂山)주한락산인데 뱃사공(楫工)은유명(有名)하신발타라(跋陀羅尊者)존자

장하도다구백라(九百羅漢擁護壯)한옹호하시고 천상(天上風樂)에풍악소리들려오는데

一四 십사 모슬포서념불중생(念佛衆生)모이다실고 법환리(法還里)서법(法)을깨쳐마음돌리세

서귀포(西歸浦)서닷을올려서방정토(西方淨土)로 도라가세극락(極樂世界阿彌陀佛)계아미타불께

나무서방대교주무량수여래불(南無西方大敎主無量壽如來佛)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관세음보살(南無觀世音菩薩)

무대세지보살마하살(無大勢至菩薩摩訶薩) (불교강연집(佛敎講演集)) 종(終)

초판『불교강연집(1953)』<제주선경가> (11~14절)

논자는 「제주신문」에 실린 <제주선경가>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현공의 삶과 사상을 연구한 전남대 철학과 이중표 교수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다.[11] 당시는 논자와 이중표 교수가 『불교강연집』 속의 <제주선경가>를 확인하기 전이었다. 그는 전후좌우 맥락을 잃은 <제주선경가>를 바로 잡고. 전반부(I, III)는 영주십경을 바탕으로 한 <제주선경가>이고, 후반부(II, IV)는 제주지명을 바탕으로 제주유래를 노래한 별개의 노래로 보인다고 조언하였다.[12]

하지만 추후에 논자가 『불교강설(1988)』에 실린 <제주선경가>를 찾으면서 하나의 노래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후 현공 생전에 발

11) 논자는 2012년 4월 23일 이메일로 이중표 교수에게 제주신문에 보도된 <제주선경가>를 보내주면서 ① 윤주일 거사가 한국전쟁시기에 제주에 내려오셔서 제주불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걸로 봐서 거사님이 제주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직접 만드신 것 같다 ② <제주선경가(仙景歌)>가 아니라 <제주불경가(仏景歌)>인듯 싶은데 확인해주셨으면 한다 ③ <제주불경가>가 언제쯤 지어졌는지, 그리고 최초(?) 출전이 어디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자문을 구했다.

12) 2012년 4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이 왔다. ① 윤주일 선생님께서 지으신 다른 노래들, 즉 <관세음보살 찬탄가> <불국세계금수강산가>와 함께 <제주선경가>도 발견했다 ②제주도를 노래한 노래의 제목은 <제주선경가>가 분명하다 ③ 현공 윤주일 선생님께서는 1951년에 제주도로 노모를 모시고 가서 1952년 4월에 광주로 오셨다던 것으로 봐서 <제주선경가>는 제주에 머무시면서 교화하시던 1951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④보내주신 자료의 노래 가사는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순서를 바로 잡아 본 결과 전반부(I, III)는 영주십경을 바탕으로 한 <제주선경가>이고, 후반부(II, IV)는 제주지명을 바탕으로 제주유래를 노래한 별개의 노래, 즉 <제주由來歌>로 생각되는데, 아직 이 자료는 찾지 못했다. ⑤팔만대장경과 관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대장경 안에 <大阿羅漢難提蜜多所說法住記> 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는 16아라한이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6존자는 이름이 跋陀羅인데 자신의 권속 900아라한과 함께 耽沒羅洲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윤주일 선생님께서는 제주도의 옛 이름인 <탐라>를 <탐몰라주>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하여 제주도를 16나한 가운데 여섯째 분인 발타라존자가 머무는 곳이라고 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신 것이다. <법주기>도 첨부파일로 보낸다. ⑥윤주일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묵암보다는 현공이라는 호를 사용하셨다. * 이중표 선생의 친절한 자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간된 초판 『불교강연집(1953)』과 재판 『불교강연집(1962)』,[13] 현공 사후에 발간된 『설법집(1987)』에서 <제주선경가>를 찾게 되면서 재확인하게 되었다.

현공의 <제주선경가>가 「제주신문」에 실리는 과정에서 뒤죽박죽 됨으로써 전후맥락이 없는 문구들이 등장한다. 이를테면 I부 "아득한 옛날 삼성혈에서 일도·이도·삼도리에 웅거했도다."는 대목에서 주어가 없고, II부 "손에손에 마주잡고 끄는 모양은 둥그럽게 일월상사의 백리주변이다."는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다. 이처럼 맥락이 안 맞거나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은 2단 세로쓰기로 된 현공의 <제주선경가>가 「제주신문」에 실리는 과정에서 가로로 잘못 읽혀 편집되었기 때문이다.

4) 잘못 인용되는 <제주선경가>

「제주신문」을 통해 <제주선경가>가 고려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 있다고 잘못 보도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여러 사례들이 나왔다. 이를테면 「제주신문」에 잘못 실린 <제주선경가>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주선경가>가 고려대장경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영주십경도 고려때부터 있었다는 주장이 그렇다. 고인이 된 양순필 선생은 고려 고종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목판 가운데 <제주선경가>가 끼어져 있음을 볼 때 오래 전부터 영주의 절경을 보고 그 감흥을 표현한 시가 있었고,[14] <제주선경가> 속에 영주십경이 들어 있기

13) 현공의 『불교강연집』 속의 <제주선경가>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수학중인 김회경 선생이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 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14) 양순필, 1991, 「凝窩의 '瀛洲十景歌' 考」, 『백록어문』 8, 제주대 국어교육과, 10-11쪽,

때문에 영주십경 역시 고려 때부터 있던 것으로 잘못 추론하고 있다.[15]

그처럼 「제주신문」에 잘못 소개된 〈제주선경가〉가 학술논문에 그대로 인용되면서, 그 잘못된 내용이 다른 곳에서도 고스란히 재인용되고 있다. 한글 서예가들이 제주어를 예술작품하기 위해서 펴낸 『제주사름 곧는 말(2013)』[16]에도 다음과 같이 잘못된 〈제주선경가〉가 실려 있다.

구경 가세 제주선경 구경 가세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 가면
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백록담 머리위엔 감로수 있고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 앉은 모양
좌우로 아름답게 뻗은 산맥은
삼신산 영주산인 한라산인데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 풍경은
그 중에도 영주십경을 들어보아라
성산일출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영구춘화 봄꽃이 백화가 난만
정방하폭 물줄기는 시원도하다
산방굴사는 기묘한 수도장인데
고수목마 노는 말은 자유천지요
아득한 옛날 삼성혈에서
일도, 이도, 삼도에서 웅거 했도다

… 중략 …

15) 위의 글, 19쪽.
16) (사)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 2013.『제주사름 곧는 말』 두 번째 펴내는 책,

한라산은 우리나라 십경 중 제일 가는 곳
가는 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 수 없네
사봉낙조 지는 해는 일상광 일세
귤림추색 가을색은 황금의 세계
녹담만설 쌓인 눈은 설산에 온 듯
영실기암 천불나한 장하도 하다
산포조어 뛰는 고기는 용궁세계라
고량부님이 솟아 나오사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 하셨네

..... 고려 고종 때 만들어진 팔만대장경 목판 가운데 '제주선경가'가 실려 있음.[17]

이처럼 뒤죽박죽된 <제주선경가>를 토대로 한글서예로 작품화한 경우[18]도 있고, 그 외에도 인터넷에서 영주십경이 등장하는 <제주선경가>가 팔만대장경에 판각되어 전해오고 있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서[19] 앞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17) 위의 책, 135쪽.
18) (사)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 한라서예전람회, <제주일보>, 2003. 6. 7
19) 제주문인협회 홈페이지
http://jejumunin.com/01_munin/board.php?board=jm001&category=9&command=body&no=693&PHPSESSID=b5ed2e0cdf5b205036fc3ce643dd0d2a

Ⅲ. 현공의 <제주선경가> 비교[20]

1. 현공 생전의 <제주선경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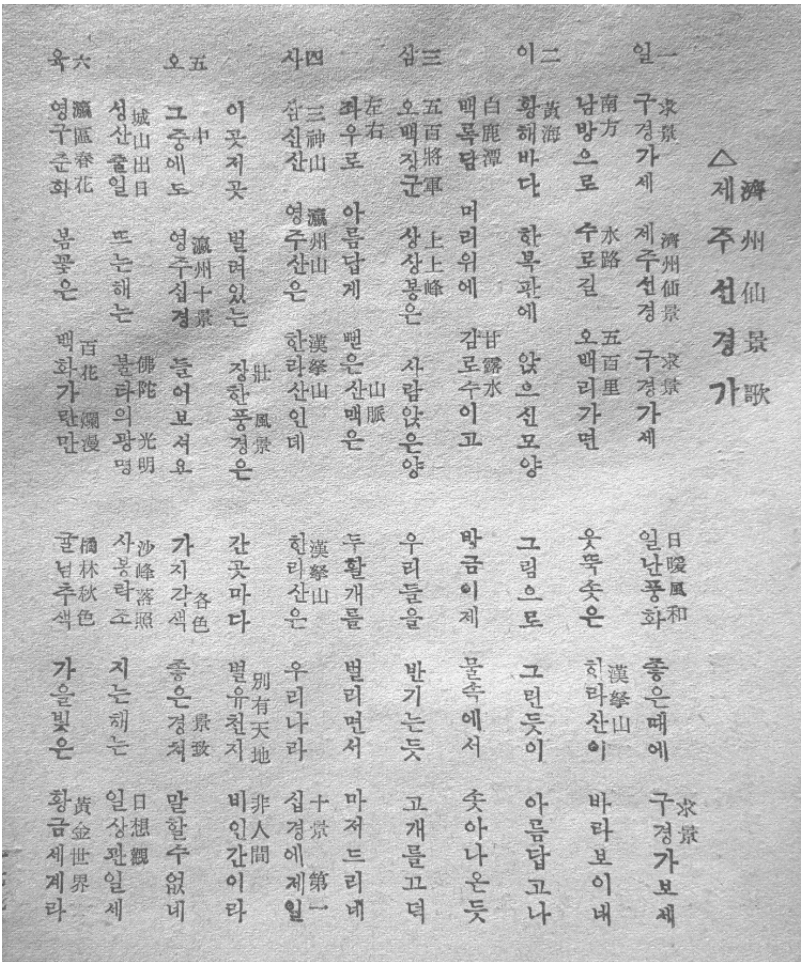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8·5 내지 7·5조의 창가 형식을 띠고 전체 14절 713자(불보살명호 36자 포함 749자)로 되어 있다. <제주선경가>가 맨 처음 활자화되던 1953년 10월 당시는 한국전쟁 직후여서 출판 여건이 어렵던 시기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의 <제주선경가>는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행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맞춤법도 오늘과 많이 다르다. 하지만 한글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한자는 옆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일반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초판『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는 이후에 수정되는 <제주선경가>들과 내용상 차이는 없어서 <제주선경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21]

1962년에 출간된 재판『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는 현공 생전에 수정이 이뤄진 교정본으로,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지만 당시 맞춤법에 맞춰 수정했고 띄어쓰기도 음보 단위로 되어 있어서 대중들이 읽기에 한결 수월하다. 재판『불교강연집』에 실린 <제주선경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판 <제주선경가>의 '모슬포'가 재판 <제주선경가>에선 '모실포'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

20) 현공의 네 가지 판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비교 분석은 윤용택, 2016,「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 연구」,『탐라문화』 5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30-240쪽 참조.

21) 위의 글, 231쪽.



△제주선경가 濟州仙景歌

一 일
求景 구경가세 濟州仙景 제주선경 求景 구경가세
南方 남방으로 水路 수로길 五百里 오백리가면

二 이
黃海 황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모양
白鹿潭 백록담 머리위에 甘露水 감로수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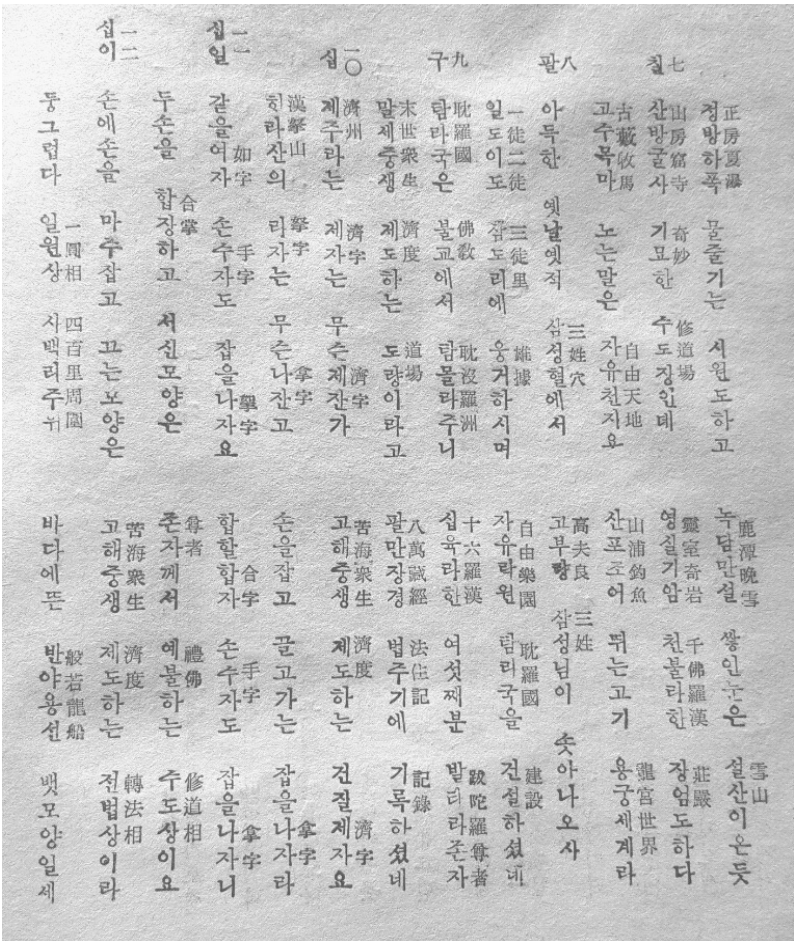
三 삼
五百將軍 오백장군 上上峰 상상봉은 사람앉은양
左右 좌우로 아름답게 뻗은 山脈 산맥은

四 사
三神山 삼신산 瀛州山 영주산은 漢拏山 한라산인데
이곳저곳 벌려있는 壯風景 장한풍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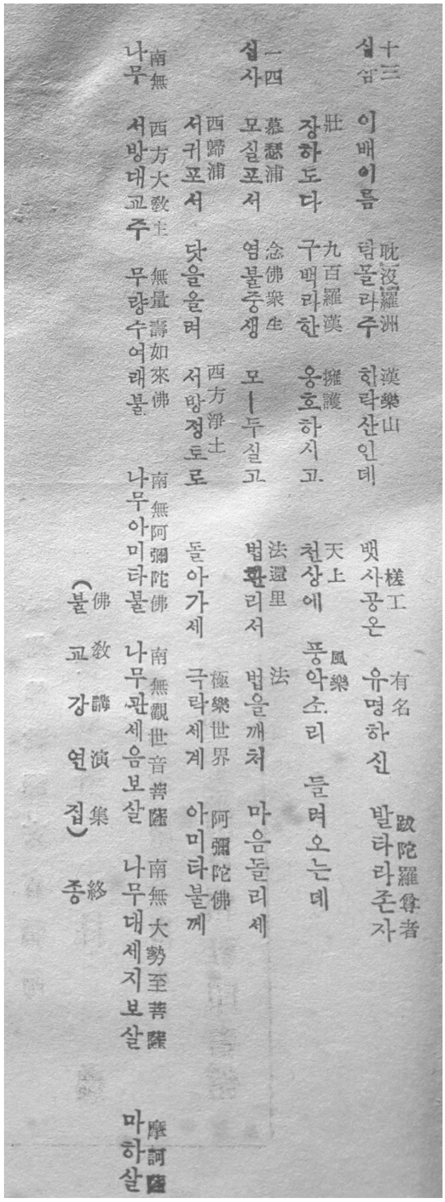
五 오
中 그중에도 瀛州十景 영주십경 들어보셔요
城山出日 성산출일 뜨는해는 佛陀光明 불타의광명

六 육
瀛區春花 영구춘화 봄꽃은 百花爛漫 백화가란만
日暖風和 일난풍화 좋은때에 求景 구경가보세
웃뚝솟은 漢拏山 한라산이 바라보이내
그림으로 그린듯이 아름답고나
방금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듯
우리들을 반기는듯 고개를끄덕
두활개를 벌리면서 마저드리네
漢拏山 한라산은 우리나라 十景第一 십경에제일
간곳마다 別有天地 별유천지 非人間 비인간이라
가지각색 各色 좋은 景致 경치 말할수없네
沙峰落照 사봉락조 지는해는 日想觀 일상관일세
橘林秋色 귤님추색 가을빛은 黃金世界 황금세계라

재판『불교강연집(1962)』〈제주선경가〉(1~5절)



재판『불교강연집(1962)』〈제주선경가〉(6~12절)


십삼(十三) 이배이름 탐몰라주(耽沒羅洲) 한락산(漢樂山)인데 뱃사공(槎工)은 유명(有名)하신 발타라존자(跋陀羅尊者)
장(壯)하도다 구백라한(九百羅漢) 옹호(擁護)하시고 천상(天上)에 풍악(風樂)소리 들려오는데
십사(一四) 모실포(慕瑟浦)서 염불중생(念佛衆生) 모—두실고 법환리(法還里)서 법(法)을깨쳐 마음돌리세
서귀포(西歸浦)서 닻을올려 서방정토(西方淨土)로 돌아가세 극락세계(極樂世界) 아미타불(阿彌陀佛)께
나무(南無) 서방대교주(西方大教主) 무량수여래불(無量壽如來佛)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나무관세음보살(南無觀世音菩薩) 나무대세지보살(南無大勢至菩薩) 마하살(摩訶薩)
(불교강연집)(佛教講演集) 종(終)

재판『불교강연집(1962)』<제주선경가> (13~14절)

* 재판『불교강연집』〈제주선경가〉[22]

一 求景 일 구경가세 濟州仙景 제주선경 求景 구경가세　日暖風和 일난풍화 좋은때에 求景 구경가보세

南方 太路 五百里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가면　漢拏山 웃뚝솟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二 黃海 이 황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모양　그림으로 그린듯이 아름답고나

白鹿潭 백록담 머리위에 北斗水이고　방금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듯

三 五百將軍 上上峰 삼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앉은양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끄덕

左右 山脈 좌우로 아름답게 뻗은산맥은　두활개를 벌리면서 마저드리네

四 三神山 瀛洲山 漢拏山 사 삼신산 영주산은 한라산인데　漢拏山 大景 第一 한라산은 우리나라 십경에제일

壯風景 이곳저곳 벌려있는 장한풍경은　別有天地 非人間 간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五 中 瀛州十景 오 그중에도 영주십경 들어보셔요　各色 景致 가지각색 좋은경치 말할수없네

城山出日 성산출일 뜨는해는 佛陀光明 불타의광명　沙峰落照 지는해는 日想觀일세

六 瀛邱春花[23] 육 영구춘화 봄꽃은 백화가란만　橘林秋色 귤님추색 가을빛은 黃金世界라

正房草濕 정방하폭 물줄기는 시원도하고　鹿潭晩雪 녹담만설 쌓인눈은 설산이온듯

七 山房窟寺 奇妙 修道場 칠 산방굴사 기묘한 수도장인데　瀛室奇岩 千佛羅漢 武殿 영실기암 천불라한 장엄도하다

古藪牧馬 고수목마 노는말은 自由天地요　山浦釣魚 龍宮世界라 산포조어 뛰는고기 용궁세계라

八 三姓穴 팔 아득한 옛날옛적 삼성혈에서　高夫良 三姓 고부량 삼성님이 솟아나오사

---

22) 尹柱逸, 1962,『佛敎講演集』(재판), 전남일보사, 197~199쪽. 〈제주선경가〉 첫 페이지가 197쪽이어야 하는데, 조판과정에서 179쪽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23) 瀛邱春花의 오기이다.

一徒二徒 三徒里 雄據 自由樂園 耽羅國 建設
일도이도 삼도리에 웅거하시며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하셨네

九 耽羅國 佛教 耽沒羅洲 十六羅漢 跋陀羅尊者
구 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 십육라한 여섯째분 발타라존자

末世衆生 濟度 道 八萬藏經 法住記 記錄
말세중생 제도하는 도량이라고 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하셨네

十 濟州 濟字 濟 苦海衆生 濟度 濟字
십 제주라는 제자는 무슨제잔가 고해중생 제도하는 건질제자요

漢拏山 拏 拿 拿字
한라산의 라자는 무슨나잔고 손을잡고 끌고가는 잡을나자라

十一 如字 手字 拏 合字 手字 拿字
십일 같을여자 손수자도 잡을나자요 합할합자 손수자도 잡을나자니

合掌 尊者 禮佛 修道相
두손을 합장하고 서신모양은 존자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

十二 苦海衆生 濟度 轉法相
십이 손에손을 마주잡고 끄는모양은 고해중생 제도하는전법상이라

一圓相 四百里周圍 般若龍船
둥그럽다 일원상 사백리주위 바다에뜬 반야용선 뱃모양일세

十三 耽沒羅洲 漢樂山 梢工 有名 跋陀羅尊者
십삼 이배이름 탐몰라주 한락산인데 뱃사공은 유명하신 발타라존자

壯 九百羅漢 擁護 天上 風樂
장하도다 구백라한 옹호하시고 천상에 풍악소리 들려오는데

十四 慕 浦 念佛衆生 法還里 法
십사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실고 법환리서 법을깨쳐 마음돌리세

西歸浦 西方淨土 極樂世界 阿彌陀佛
서귀포서 닻을올려 서방정토로 돌아가세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南無 西方大教主 無量壽如來佛 南無阿彌陀佛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 나무아미타불

南無觀世音菩薩 南無大勢至菩薩 摩訶薩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재판 『불교강연집』에 실린 <제주선경가>는 초판에서의 맞춤법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읽기가 한결 쉽고 뜻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제주선경가>의 교정본이라 할 수 있는 여기에서도 한라산이 '남해바다'가 아닌 '황해바다'에 위에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 시비를 논해 볼 필요가 있다.

2. 현공 사후의 <제주선경가>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1987년에 법제자들이 새롭게 출간한 『설법집』과 1988년 출간한 『불교강설』[24]에도 실려 있다. 『설법집』의 <제주선경가>는 앞에서 '닷'이 '닻', '마저드리네'가 '맞아들이네'로 수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공 생전에 '모슬포'를 '모실포'로 교정했던 것을 다시 '모슬포'로 재수정한 것은 현지 제주도민이 사용하는 제주어를 일부 수용하여 그들의 정서에 맞춰 대중포교를 하겠다는 현공의 의도를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설법집』의 <제주선경가>는 여전히 2단 세로쓰기로 되어 있고, 음보에 맞춰 띄어쓰기를 하고 있어서 현공 생전에 출간된 재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에 1988년에 『불교강연집』의 책명을 바꿔 출간한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는 편집 형식이 가로쓰기로 바뀌었고, 띄어쓰기도 어절 단위로 되어 있다. 하지만 한자 다음에 한글로 음을 다는 형태여서 한글세대에게는 오히려 읽기에 다소 거북한 점이 있다. 따라서 『불교강설』은 한자를 모르는 대중을 고려하여 한글중심으로 편집했던 『불교강연집』에 비해 불교대중화 측면에선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4) 尹柱逸, 1988. 『佛敎講說』, 宣文出版社, 이 책은 현공 사후 『佛敎講演集』의 책명을 바꿔 출간한 것으로 한자가 앞에 두고 한글 독음을 달고 있으며, 가로쓰기로 되어 있다.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25]

1. 求景(구경)가세 濟州仙景(제주선경) 求景(구경)가세
   日暖風和(일난풍화) 좋은 때에 求景(구경)가보세
   南方(남방)으로 水路(수로)길 五百里(오백리) 가면
   우뚝솟은 漢拏山(한라산)이 바라보이네
2. 南海(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
   白鹿潭(백록담) 머리 위에 甘露水(감로수)이고
   방금 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 듯
3. 五百將軍(오백장군) 上上峰(상상봉)은 사람 앉은 양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左右(좌우)로 아름답게 뻗은 山脈(산맥)은
   두 활개를 벌리면서 맞아드리네
4. 三神山(삼신산) 瀛州山(영주산)은 漢拏山(한라산)인데
   漢拏山(한라산)은 우리나라 十景(십경)에 第一(제일)
   이곳저곳 벌려있는 壯(장)한 風景(풍경)은
   간 곳마다 別有天地(별유천지) 非人間(비인간)이라
5. 그 中(중)에도 瀛洲十景(영주십경) 들어보셔요
   가지 各色(각색) 좋은 景致(경치) 말할 수 없네
   城山出日(성산출일) 뜨는 해는 佛陀(불타)의 光明(광명)
   紗峰落照(사봉낙조) 지는 해는 日想觀(일상관)일세
6. 瀛區春花(영구춘화)[26] 봄꽃은 百花(백화)가 爛漫(난만)
   橘林秋色(귤림추색) 가을빛은 황금세계(黃金世界)라
   正房夏瀑(정방하폭) 물줄기는 시원도 하고
   鹿潭晩雪(녹담만설) 쌓인 눈은 설산(雪山)이 온듯
7. 山房窟寺(산방굴사) 기묘(奇妙)한 수도장(修道場)인데
   靈室奇巖(영실기암) 천불라한(千佛羅漢) 장엄(莊嚴)하도다
   古藪牧馬(고수목마) 노는 말은 자유천지(自由天地)요

25) 尹柱逸, 1988,『佛敎講說』, 宣文出版社, 272-275쪽.
26) 영구춘화(瀛邱春花)의 오기이다.

山浦釣魚(산포조어) 뛰는 고기 용궁세계(龍宮世界)라
8. 아득한 옛날 옛적 삼성혈(三姓穴)에서
고부량(高夫良) 삼성(三姓)님이 솟아나오사
一徒(일도) 二徒(이도) 三徒里(삼도리)에 雄據(웅거)하시어
自由樂園(자유낙원) 耽羅國(탐라국)을 建設(건설)하셨네
9. 耽羅國(탐라국)은 佛敎(불교)에서 耽沒羅洲(탐몰라주)니
十六羅漢(십육라한) 여섯째 분 跋陀羅尊者(발타라존자)
末世衆生(말세중생) 濟度(제도)하는 道場(도량)이라고
八萬藏經(팔만장경) 法住紀(법주기)[27]에 記錄(기록)하셨네
10. 濟州(제주)라는 濟字(제자)는 무슨 濟(제)잔가
苦海衆生(고해중생) 濟度(제도)하는 건질 濟(제)자요
漢拿山(한라산)의 拿字(나자)는 무슨 拿(나)잔고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잡을 拿(나)자요
11. 같은 如字(여자) 손 手字(수자)도 잡을 挐(나)자요
합할 合字(합자) 손 手字(수자)도 잡을 拿(나)자니
두 손을 合掌(합장)하고 서신 모양은
尊者(존자)께서 禮佛(예불)하는 修道相(수도상)이요
12. 손에 손에 마주잡고 끄는 모양은
고해중생(苦海重生) 제도(濟度)하는 전법상(轉法相)이라
둥그럽다 一圓相(일원상) 四百里周圍(사백리주위)
바다에 뜬 般若龍船(반야용선) 뱃 모양일세
13. 이 배 이름 耽沒羅洲漢拿山(탐몰라주 한나산)인데
뱃梹工(사공)은 有名(유명)하신 跋陀羅尊者(발타라존자)
壯(장)하도다 九百羅漢(구백라한) 擁護(옹호)하시고
天上(천상)에 風樂(풍악)소리 들려오는데
14. 摹瑟浦(모슬포)서 念佛衆生(염불중생) 모두 실고
法還里(법환리)서 法(법)을 깨쳐 마음 돌리세
西歸浦(서귀포)서 닷을 올려 西方淨土(서방정토)로
돌아가세 極樂世界(극락세계) 阿彌陀佛(아미타불)께

27) 法住記의 오기이다

南無西方大敎主無量壽如來佛(나무서방대교주무량수여래불)
南無阿彌陀佛(나무아미타불)
南無觀世音菩薩(나무관세음보살)
南無大勢至菩薩摩訶薩(나무대세지보살마하살)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현공 생전에 출판된 『불교강연집(1953, 1962)』과 사후에 출판된 『설법집(1987)』, 『불교강설(1988)』에 실린 것 모두가 글자 수는 14절 56행 713자로 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현공 생전에 수정되어 교정본이라 할 수 있는 재판 『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를 기준으로 볼 때 사후에 제자들이 수정한 <제주선경가>들 사이에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제자들이 1987년에 펴낸 『설법집』에 실린 <제주선경가>에서는 3절의 '마저드리네'를 '맞아들이네'로, 6절의 '란만(爛漫)'을 '난만(爛漫)', '귤님추색'을 '귤림추색'으로, 13절 '뱃모양'을 '배모양'으로, 14절의 '모실포'를 '모슬포', '닷'을 '닻' 등으로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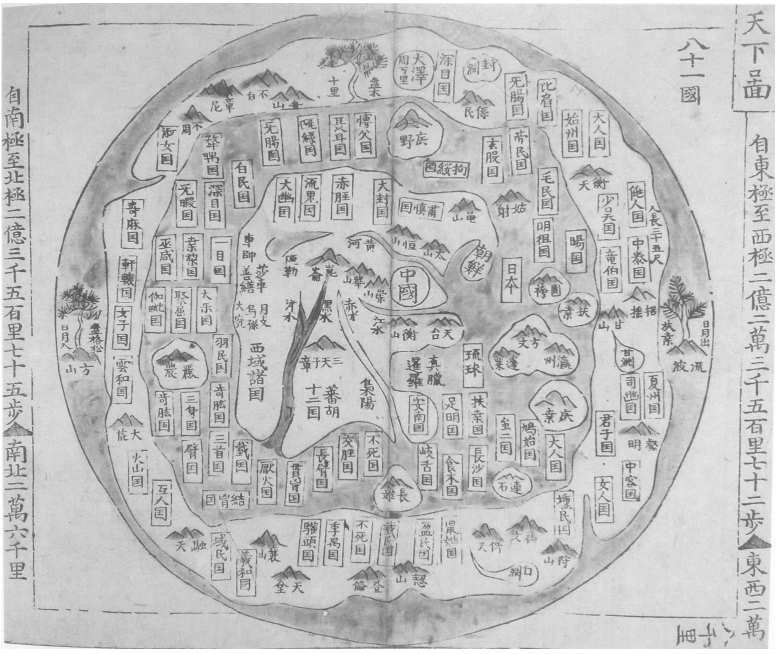
한편 1988년 발간된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의 수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라산 위치가 '황해바다'에서 '남해바다'로 교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3절의 '마저드리네'를 '맞아드리네'로, 13절에서 '한락산(漢樂山)'을 '한나산(漢拿山)'으로, '모실포'를 '모슬포'로 수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락산'을 '한나산'으로 수정하고, 14절의 '모실포'를 '모슬포'로 수정한 것은 제주도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일부 수용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포교하려는 현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Ⅳ. <제주선경가> 수정에 대한 고찰

여기서는 일단 맞춤법에 맞춘 수정은 논외로 하고, 현공 사후에 한라산의 위치를 '황해'에서 '남해'로 수정한 것, 현공 생전에 '모슬포'에서 '모실포'로 수정했던 것을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실포'에서 '모슬포'로 고친 것, 매계와 현공의 영주십경의 배열순서 등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1. 한라산의 위치에 대한 논고

현공 생전에 발간된『불교강연집』과 사후에 펴낸『설법집』속의 <제주선경가>에서는 모두 "구경가세 제주선경 구경가세, 일난풍화 좋은 때에 구경가보세.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 가면, 우뚝솟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황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라고 하고 있다. 현공은 한라산이 삼신산 중 하나인 영주산임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한라산이 남해가 아닌 황해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삼신산의 위치를 나타낸 천하도[28]

사실, 삼신산(三神山)은 전설 속의 산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삼신산은 "발해 가운데"[29] 있고, 영주를 비롯한 오산(五山)은 "발해의 동쪽 몇 억 만리인지 알 수 없는 떨어진 곳"[30]에 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널리 유포되었던 신선사상이 반영된 천하도에서는 삼신산이 일본과 류구국(지금의 오키나와)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

28) 작자 미상, 전형적인 목판 천하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상학, 2005, 『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27쪽 : 오상학, 2015, 『천하도』, 문학동네, 12쪽.

29) 司馬遷, 『史記』「封禪書」: …蓬萊方丈瀛州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

30) 列禦寇 撰, 『列子』「湯問」 : 渤海之東不知幾億萬里…其中有五山焉 一曰岱輿 二曰員嶠 三曰方壺 四曰瀛洲 五曰蓬萊…

게다가 중국의 남해(南海)는 타이완 남쪽 바다를 의미한다[31]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영주산인 한라산이 황해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선경가〉가 실린 『불교강연집』에 있는 또 다른 포교 노래인 〈불국세계금수강산가〉 11절 "**남해중(南海中)** 영주산(瀛州山)에 불로초(不老草)를 캐어다가"라는 대목에서는 영주산, 즉 한라산이 '남해(南海)'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선경가〉에서 한라산이 황해에 있다는 것은 오류로 보인다.

더구나 〈제주선경가〉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노래가 아니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 가면, 우뚝 솟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라고 노래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현공 사후인 1982년 「제주신문」에 실린 〈제주선경가〉와 1988년 출판된 『불교강설』의 〈제주선경가〉에서 한라산의 위치가 '황해바다'에서 '남해바다'로 교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2. '한락산'과 '모실포' 표기에 대한 논고

현공은 '한라산'을 '한락산'으로, '모슬포'를 '모실포'로 명기하고 있다. 〈제주선경가〉의 교정본이라 할 수 있는 재판 『불교강연집』 〈제주선경가〉 13절에서 "이 배 이름 탐몰라주 **한락산**인데…"라고 하고 14절에서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라 하고 있다. 하지만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1987년 펴낸 『설법집』에서

31) 『中國國家地理地圖』,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0, 16-17쪽.

는 '모실포'가 '모슬포'로, 1988년 펴낸 『불교강설』에서는 '한락산'을 '한나산'으로 수정되었다.

논자가 볼 때 현공이 생전에 '한라산'을 '한락산'이라 하고, '모슬포'를 '모실포'라고 표기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현공이 제주도민이 '한라산'을 '할락산', '할로산'이라 부른다는 점[32]을 수용하여 불교대중화 차원에서 민중들의 눈높이에서 제주도가 불연이 깊은 땅임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제주선경가>의 1, 4, 10절에서는 '한라산'으로 13절에서는 '한락산'으로 표기함으로써 '한라산' 표기에 일관적이지 않은 점은 그의 의지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제주선경가> 전 대목에서 일관되게 제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닷'[33] '한락산' '모실포' 등 일부 단어만 제주어를 수용했느냐를 문제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언어를 포교노래에 사용하려는 현공의 의지는 생전에 초판 <제주선경가>에서 "**모슬포**서 념불중생 **모**-다 **실**고"라고 했다가 재판 <제주선경가>에서는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로 교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제주도민이 '모슬포'를 '모실포'라고도 한다[34]는 사실에 착안하여 '**모**'와 '**실**'을 살린 것이다. 중생을 '**모**'두 '**실**'으려면 '**모슬포**'가 아니라 '**모실포**'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1987년 펴낸 『설법집』 <제주선경가>[35]에서는 "…**모슬포**서 염불중생 **모**-두

32) 송상조, 2008, 『제주말큰사전』, 705~707쪽;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009, 872~873쪽.

33) 배를 고정시키려고 줄에 묶어 바다에 드리우는 무게가 나가는 쇠나 돌덩이. 표준어 '닻[碇]'의 제주어.송상조, 2008, 『제주말큰사전』, 163쪽; 제주특별자치도, 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228쪽.

34) '모슬포(摹瑟浦)'의 옛이름은 '모슬개'로 '모살개. 모실개'라고도 한다. '모슬, 모살, 모실' 등은 '모래'의 제주방언이다.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90쪽.

실고"로 바뀌었고, 1988년『불교강설』<제주선경가>에서는 "모슬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로 수정되었다. 거기서는 모슬포에서 염불중생을 모두 싣는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염불중생 모-두 실고"라는 시구에 어울리려면 '모슬포'가 아니라 '모실포'라야 한다.[36]

따라서 사후에 제자들이 '한락산'을 '한나산'으로, '모실포'를 '모슬포'로 수정한 것은 현공은 제주도민이 일상에서 쓰던 제주어를 포교노래에 일부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3. 영주십경 순서에 대한 논고

제주의 자연경관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될 만큼 매우 뛰어나다. 하여 조선의 유학자들은 제주를 도가적 이상향으로 보기도 하였다.[37] 특히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영향을 받은 제주 유학자 매계 이한우(梅溪 李漢雨, 1818~1881)는 제주목사를 지낸 응와 이원조(凝窩 李源祚, 1792~1871)가 제주의 빼어난 경관 10곳을 선정한 영주십경(瀛洲十景)을 정리하여 성산출일(城山出日), 사봉낙조(紗峰落照), 영구춘화(瀛區春花), 정방하폭(正房夏瀑), 귤림추색(橘林秋色), 녹담만설(鹿潭晩雪), 영실기암(靈室奇巖), 산방굴사(山房窟寺), 고수목마(古藪牧馬), 산포조어(山浦釣魚)를 영주십경으로 특정하였다.

35) 李東豪 編, 1987,『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호서문화사, 416~418쪽.
36) 윤용택, 2016,「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 연구」,『탐라문화』5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40쪽.
37) 김치완, 2012,「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대동철학』59, 대동철학회, 150~151쪽.

현공은 영주십경을 노래하면서 성산출일(城山出日)에서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는 부처님의 광명을, 사봉낙조(紗峰落照)에서는 지는 해를 보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마음속에 떠올리는 일상관(日想觀)을, 영구춘화(瀛邱春花)와 귤림추색(橘林秋色)에서는 흐드러진 봄꽃과 노랗게 익어가는 귤을 보면서 백화만발하고 황금으로 가득 찬 극락세계를, 여름에 물보라 치며 떨어지는 정방하폭(正房夏瀑)에서는 번뇌가 사라진 시원한 모습을, 늦봄까지 쌓여 있는 녹담만설(鹿潭晩雪)에서는 석가모니가 수행하던 설산(雪山)을 그려본다. 그리고 그는 망망대해가 내다보이는 산방굴사(山房窟寺)는 기묘한 수도처로, 기암괴석의 영실기암(靈室奇巖)은 불도를 닦는 아라한들의 거주처로 상정되고, 넓은 초원에서 맘껏 뛰노는 고수목마(古藪牧馬)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를 찾은 모습을, 바다에서 낚시하는 산포조어(山浦釣魚)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용왕이 산다는 용궁을 연상하고 있다.[38] 현공은 그동안 조선 유학자들이 도가적(道家的) 이상향으로 상정해온 영주십경을 새롭게 불가적(佛家的) 이상향으로 번안해낸 것이다.

매계는 영주십경의 특정하면서 계절적으로 영구춘화, 정방하폭, 귤림추색, 녹담만설 순으로 특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춘하추동 사계절을 감안한다면 '녹담만설'은 시기적으로 겨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녹담만설(鹿潭晩雪)은 제주섬의 기후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한겨울에 눈으로 가득 덮여있는[滿雪] 한라산 모습이 아니라 벚꽃, 유채꽃, 청보리밭 등을 배경으로 늦게까지 눈 쌓인[晩雪] 한라산 모습이다.[39]

---

38) 윤용택, 2016, 「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 연구」, 『탐라문화』 5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44쪽.

39) 윤용택, 2015, 「제주다움에 비춰본 영주십경」, 『제주도연구』 42, 제주학회, 35쪽 참조.

현공은 매계와는 달리 귤림추색과 정방하폭의 순서를 바꾸어서, 영구춘화, 귤림추색, 정방하폭, 녹담만설 순으로 노래하면서, 봄꽃과 가을빛, 물줄기와 쌓인 눈의 대구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주섬이 불국토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계의 영주십경 배열순서와 다름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Ⅴ. 맺음말

현공의 <제주선경가>는 원본이라 할 수 있는 초판『불교강연집(1953)』에 실린 것, 그의 생전에 수정되어 교정본이라 할 수 있는 재판『불교강연집(1962)』에 실린 것,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수정한『설법집(1987)』과『불교강설(1988)』에 실린 것, 1982년「제주신문」에 실린 것 등 다섯 가지 판본이 있다.

「제주신문」에 실린 <제주선경가>를 제주도민에게 맨 처음 알리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보도되는 과정에서 뒤죽박죽되어 전후맥락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정본이라 할 수 있는 재판『불교강연집』에 실린 <제주선경가>도 한라산의 위치를 '황해'에서 '남해'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수정한 경우는 제주도민들이 구사하는 제주어를 일부 수용하여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현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현공의 교정본인 재판『불교강연집』의 <제주선경가>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현공 사후에 제자들이 수정한『설법집』과『불교강설』의 두 <제주선경가>를 감안하여, 제주도민이 사용하는 제주어를 일부 수용하여 지역민의 정서에 맞춰 포교하려 했던 현공의 취

지를 살린 표준 〈제주선경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미흡하나마 현공의 네 판본을 종합하여 다음의 〈제주선경가〉를 표준안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사계의 연구와 비판적 논의를 거쳐 표준 〈제주선경가〉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제주선경가〉

1. 구경가세 제주선경 구경가세
   일난풍화 좋은 때에 구경가보세
   남방으로 수로길 오백리 가면
   우뚝 솟은 한라산이 바라보이네
2. 남해바다 한복판에 앉으신 모양
   그림으로 그린 듯이 아름답고나
   백록담 머리 위에 감로수이고
   방금 이제 물속에서 솟아나온 듯
3. 오백장군 상상봉은 사람 앉은 양
   우리들을 반기는 듯 고개를 끄덕
   좌우로 아름답게 뻗은 산맥은
   두 활개를 벌리면서 맞아들이네
4. 삼신산 영주산은 한라산인데
   한라산은 우리나라 십경에 제일
   이곳저곳 벌려 있는 장한 풍경은
   간 곳마다 별유천지 비인간이라
5. 그 중에도 영주십경 들어보셔요
   가지각색 좋은 경치 말할 수 없네
   성산출일 뜨는 해는 불타의 광명

사봉낙조 지는 해는 일상관일세

6. 영구춘화 봄꽃은 백화가 난만
   귤림추색 가을빛은 황금세계라
   정방하폭 물줄기는 시원도 하고
   녹담만설 쌓인 눈은 설산이 온듯
7. 산방굴사 기묘한 수도장인데
   영실기암 천불라한 장엄도하다
   고수목마 노는 말은 자유천지요
   산포조어 뛰는 고기 용궁세계라
8. 아득한 옛날 옛적 삼성혈에서
   고부량 삼성님이 솟아나오사
   일도 이도 삼도리에 웅거하시며
   자유낙원 탐라국을 건설하셨네
9. 탐라국은 불교에서 탐몰라주니
   십육라한 여섯째 분 발타라존자
   말세중생 제도하는 도량이라고
   팔만장경 법주기에 기록하셨네
10. 제주라는 제자는 무슨 제(濟)잔가
    고해중생 제도하는 건질 제(濟)자요
    한라산의 라자는 무슨 나(拿)잔고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잡을 나(拿)자라
11. 같을 여(如)자 손 수(手)자도 잡을 나(拏)자요
    합할 합(合)자 손 수(手)자도 잡을 나(拿)자니
    두 손을 합장하고 서신 모양은
    존자께서 예불하는 수도상이요
12.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끄는 모양은

고해중생 제도하는 전법상이라
둥그럽다 일원상 사백리 주위
바다에 뜬 반야용선 뱃모양일세
13. 이 배 이름 탐몰라주 한락산인데
뱃사공은 유명하신 발타라존자
장하도다 구백라한 옹호하시고
천상에 풍악소리 들려오는데
14. 모실포서 염불중생 모-두 실고
법환리서 법을 깨쳐 마음 돌리세
서귀포서 닷을 올려 서방정토로
돌아가세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마하살

참고문헌

김치완, 2012.「瀛洲十景으로 본 朝鮮 儒學者의 仙境 인식과 그 태도」,『대동철학』59, 대동철학회,

司馬遷,『史記』本紀 卷六 秦始皇本紀第六.

송상조,『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2008.

양순필, 1991.「凝窩의 '瀛洲十景歌'考」,『白鹿語文』8, 제주대,

列禦寇 撰, 2011.『列子』, 임동석 역주, 동서문화사,

오상학, 2005.『옛 삶터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오상학, 2015,『천하도』, 문학동네.

오창명, 2004.『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윤용택, 2014.「제주다움에 비춰본 영주십경」,『제주도연구』42, 제주학회,

_____, 2016.「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 연구」,『탐라문화』5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윤주일, 1953(초판).『佛敎講演集』, 全南日報社,

_____, 1962(재판).『佛敎講演集』, 全南日報社,

_____, 1988.『佛敎講說』, 宣文出版社,

이동호 편, 1987.『玄空尹柱逸大法師說法集』, 湖西文化社,

이중표, 2010.「현공 윤주일과 호남불교」,『호남문화연구』48,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특별자치도한글서예사랑모임, 2013.『제주사름 ᄀᆞᆫ는 말』두번째 펴내는 책,

「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 大唐三藏法師玄奘奉 詔譯(고려대장경 K-1046)

『中國國家地理地圖』, 2010.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제주신문」, "海印寺 팔만대장경 가운데 〈濟州仙景歌〉 있어 주목", 1982. 7. 31.

「제주신문」, "(사)한국서가협회 제주도지회 한라서예전람회", 2003. 6. 7

제주문인협회 홈페이지

http://jejumunin.com/01_munin/board.php?board=jm001&category=9&command=body&no=693&PHPSESSID=b5ed2e0cdf5b205036fc3ce643dd0d2a

Abstract

A Corrective Study on Hyunkong Yun Jooil's <Jejuseonkyeong-ga>

Yoon, Yong-Taek*

Hyunkong Yun Jooil(1895~1969) wrote <Jejuseonkyeong-ga> in Jeju during the Korean War. In <Jejuseongyeong-ga> Hyunkong reinterpreted Yeongjusipkyeong from the Buddhist point of view, gave the Buddhist meaning to nature, history and place names of Jeju island. It was first published in Gwangju in 1953, but was reported very differently in Jeju on the newspaper in 1982. Still false information about it has been prevailing in Jeju. <Jejuseonkyeong-ga> was revised at least three times. The second edition of <Jejuseongyeong-ga> was modified by Hyunkong. Therefore, it can be called authentic, but this also needs to be re-corrected to match the spelling. In writing <Jejuseonkyeong-ga>, Hyunkong tried to use Jeju language familiar to the public. However his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his intentions. So they changed Jeju language into the standard Korean in revised <Jejuseonkyeong-ga>s. Therefore, I propose newly modified <Jejuseongyeong-ga> considering Hyunkong's intentions.

Key Word : Hyunkong Yun Jooil, Jejuseonkyeong-ga, Yeongjusip-kyeong, Bulkyokangyeonzip, Bulkyokangseol.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 윤용택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E-mail: sumsaram@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16. 07. 19
수정완료일 : 2016. 08. 09.
게재확정일 : 2016. 08. 16.